

# 육십령고개 관광명소화 나선다

# 전도마을 생활여건 개선 꾀한다

### 무주군, 지난해 정천마을 이어 올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도전

### 장수군, 호·영남 상생의 장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3D 히스토리밍 센터·가야타워·짚라인 등 조성

장수군은 육십령고개에 3D Historyming Center와 랜드마크가 될 가야타워, 국내 최고높이 짚라인 등을 조성하고 호남과 영남의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십령고개는 해발 734m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2001년 개통되기 이전까지 호남과 영남 교류의 상징으로, 자연경계인 백두대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호남(전북)과 영남(경남)을 잇는 중요 길목이며, 기원 전·후부터 2000년간 동서를 이어주는 상생의 장이며 그동안 영남지방으로 인식됐던 고대 가야의 호남지방 진출로 이기도 하다.

또한, 고대 철운반길(아이언로드) 뿐만 아니라 영남지방에서 멀리 서해안에 소금을 사러 왕래했던 소금길(솔트로드)이 발달 되었던 곳이다.

한편, 육십령 고개는 장수군 장계면과 함양군 서상면을 이어주며 육십령이란 이름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며 고갯길의 굽이 60굽이라 붙여졌다고도 하지만 이 고개에 도착때가 많아 60명이상이 모여야 넘을 수 있다고 하여 육십령이란 지명이 붙여졌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있다.

최근 이 근처에서 확인되는 철 생산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대 고부가가치 산업인 철산업을 번창했던 이곳에 도착때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교류를 위해 쇠덩이를 옮기려면 60명 이상 모여야 했었을 것이란 추론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장수지역은 최근 철 생산 유적을 운영하고 봉화불을 화려하게 밝히며 번창했던 가야의 소국인 반과국이 자리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봉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일조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기원 전후부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가야세력이 장수군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

장수군은 이러한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육십령에 3차원 기술이 접목된 히스토리밍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가야타워로 상징되는 호·영남 상생의 장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북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구체화, 경남 함양군과의 상생발전방안, 인근 한국마사의 경우마 육성목적장과의 연계방안, 당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장영수 군수는 "상징적인 육십령고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부합성과 육십령의 옛 명성에 걸맞은 터를 조성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역사문화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다"며 "사업의 현실화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함양군과 연계된 가야문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 육십령 히스토리밍센터 조감도.

장수군이 노후불량 주택과 마을 생활여건이 취약한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대폭 변신을 꾀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던 안성면 정천마을에 이어 올해 무주읍 전도마을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지난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차 대면평가를 마쳐 오는 3월 중 최종 공모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평가에는 이무상 건설과장과 전도마을 이종대 추진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마을의 경우 지난해 공모사업 대상지로 1차 선정된 바 있어 최종 선정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향후 전도마을이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면 슬레이트 지붕정비와 노후주택 수리, 마을환경 개선과 휴먼 케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다.

총 17억원이 투입될 전도마을 취약 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경우 국가 최종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70% 확보가 가능하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마을은 79가구, 168명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정천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 공모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을 밟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0억6,000여만 원 등 총 14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할 수 수립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중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집수리 지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도마을까지 공모에 선정될 경우 이들 마을들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마을 환경이 완전히 변모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무주 안성면 정천마을은 59세대 97명이 거주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수십년간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불편을 가져온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주택 성능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이다"라며 "정천마을과 함께 무주읍 전도마을도 최종 선정 돼 보다 폭넓은 정주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1차 총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19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 추진을 위한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 1차 총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기관사회단체장 및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신규 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임원선출, 홍삼축제 추진방향 승인, 축제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진안홍삼축제는 마이산의 기운과 정성으로 키운 홍삼을 테마로 한 전국유

일의 축제이며 2020~2021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및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으나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 취소됐다. 홍삼축제추진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올해 진안홍삼축제를 개최하고자 뜻을 모았다. 특히 비대면 프로그램 및 상황에 따른 제한적 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진안홍삼축제가 안전하고 알찬 구성의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회 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의암주논개 정신 선양회 정기총회 가져

(사)의암주논개 정신 선양회(회장 신봉수)는 지난 19일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장영수 군수와 김용문 군의장, 선양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 총회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회비 인상 조정안과 2021년 사업

계획, 세입세출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논개정신 선양회 사무국장으로 8년간 봉직하다가 퇴임하는 유정석 사무국장에게 군수 감사패와 선양회장의 공로패를 전달하고 신입 최문식 사무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군,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진안군은 군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본격 나선다.

군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71억을 확보하고, 노노(老老)케어,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영농사업, 공동작업장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진안군시니어클럽 등 8개 수행기관에서 4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1,989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각 수행기관에서는 방역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익창출에 이바지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을 주는 노년 삶의 보장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무주군이 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농촌의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 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무주군에 사업물량 75동이 배정됐으며, 농촌지역 무주택 주민 또는 본인 소유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데 소요될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주택개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상 주택은 150㎡ 이하 단독주택이어야 하며 신축의 경우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할 경우엔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도시 지역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관리 포럼 개최

###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 모색

무주군은 지난 19일 안성면 복합어울림센터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관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금산군 추부면 성인옥 사무국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참여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로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순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와 한국농어촌아카데미 유상건 이사장, 라인교육연구소 라서현 대표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나서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들은 시설물 활용 방안과 활성화 지원사항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설물이 지역경관 개선과 생활서비스 제공 등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과 각 지역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홍 군수는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 만큼 읍·면을 기반으로 무주군 발전을 거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로 기대를 한다"며 "각 읍·면 시설들이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확충해 가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관리·운영·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공모)은 읍·면 소재지의 기

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복지시설을 더한 복합거점을 조성해 주민여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2019년까지 47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안성면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설천면 사업은 지중화공사 추진을 앞두고 있다. 무주읍에 대한 기본계획 추진과 무풍면, 적상면에 대한 시행계획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부남면도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은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 집', 안성면 '어울림센터' 등이며 무풍면 '어울림 은누리관'과 적상면 '오색대동 이야기센터'는 추진 중이다. 무주읍 '반디 키움센터'와 '청소년 키움센터' 조성과 부남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 등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